

# 중국문화언어학의 동향과 전망\*

정진강\*

## 목 차

- I. 시작하는 글
- II. 80년대 이래 중국언어학 연구의 특징
- III. 중국문화언어학의 유래·동향 및 전망
- IV. 마치는 글

## I. 시작하는 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사회체제의 변화의 조짐을 보인 지 얼마 못 가 그 후견인 역을 맡고 있던 소련이 무너졌다. 소련의 붕괴는 다시 동구 사회주의의 붕괴를 가속화 시켰고, 이제 유럽대륙 사회주의 국가의 존재는 지나간 이야기처럼 되어버렸다. 인류의 대실험이었던 사회주의가 끝났다는 성급한 평가도 나오고 있으며, 이제는 몇 남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 가운데 중국의 미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그 나라들보다 먼저 경제개방을 시작하여 많은 충격에도 불구하고 고무줄처럼 유연한 탄력성을 가지고 대처해가고 있다. 그러한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중국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문화열’이다. 사실 중국식 사회주의는 동유럽이나 소련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고 현재도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문화’에는 그런 중국적 의미가 들어 있다. 신해혁명(1911)이후 전개된 5·4 신 ‘문화’ 운동, 중화인민공화국 성립(1949) 이후 사회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신 ‘문화’ 로의 개조, 반우파운동의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모택동도 부분적으로 잘못을 인정했던 ‘문화’ 대혁명(1966—1976), 그리고 오늘날 개혁·개

\* 이 글은 숭실대학교 개교 101주년 기념 인문과학연구소 학술발표회(1998. 10. 29.)에서 발표된 것임.

\*\* 숭실대 중문과 교수

방의 문제에서 시작된 ‘문화’ 열이 모두 ‘문화’ 를 중심 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인들이 역사의 전환기마다 문화를 중심 고리로 논의를 전개해왔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오늘날 중국에서 논의되는 ‘문화열’ 은 문화연구의 붐(boom)을 의미한다. ‘문화열’ 은 1979년 제11기 3중 전회를 통해 개혁·개방의 전국적 확대가 결정되면서 시작된 낙후된 중국의 현실 속에서 새로운 중국사회의 건설을 위해 전통과 사회주의 그리고 개혁·개방의 문제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의 총체이다. 1982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문화사 연구학자좌담회’ 가 상해의 복旦대학에서 열렸고, 사실상 이 모임이 ‘문화열’ 의 직접적 발단이 되었다. 논의의 핵심이 된 내용은 문화의 성질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문화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문화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전통문화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중외문화교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문화의 중심은 무엇인가 등이었다.<sup>1)</sup>

이처럼 중국전역을 강타한 문화연구의 붐은 많은 지식인을 자극하여 중국학술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논의들을 이끌어 내었다. 이러한 붐은 중국문화의 매개체라 할 수 있는 중국어 연구에 있어서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즉 80년대부터 상해지역의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중국문화언어학’ (chinese cultural linguistics)의 건설인데, 그들의 목표는 漢藏語族(Sino-Tibetan language family)의 중심축인 중국어에 걸맞는 새로운 언어이론체계의 구축이다. 이 같은 조류의 흥행은 서방의 보편적인 언어이론—인구어에서 귀납적으로 도출한 구조주의 학파로 대표되는 언어이론—에 대한 도전과 중국전통언어학에 대한 재평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문화언어학의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그것이 지니는 인문학적 성질을 부각시킴으로서 본 발표회가 내걸고 있는 「21세기 사회에서의 인문학」 이란 주제에 동참하여 그 일말의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 II. 80년대이래 중국언어학 연구의 특질

현대 일반언어학을 두 종류의 대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巨視언어학(macrolinguistics)과 微視언어학(microlinguistics)이다. 巨視언어학은 음성에 관한 물리적 연구로부터 시작하여 언어와 문화를 다루는 것에 이르기까지 언어연구의 모든 부분을 총칭하는 용어로, 미국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사용하는 술어이다. 微視언어학은 미국구조주의 언어학에서 나누고 있는 언어학 분야의 하나로 거시언어학과 대조된다. 일반적으로 단순히 언어학이라 불리는 연구분야로, 언어조직의

1) 《현대중국의 모색》 pp.9~10 참조.

분석 및 기술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음운론(phonology)과 형태소론(morphemics), 통사론(syntax)으로 나뉜다. 즉 거시언어학은 언어의 내부적인 구조 분석외에도 언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제들간의 다변적 연구를 활성화 시킨것으로, 심리언어학·사회언어학·문화언어학·수리언어학·對比언어학·응용언어학·교제언어학·模糊언어학·話語언어학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미시언어학은 언어의 내부구조 연구를 주로하여, 언어이외의 사실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있다. 20세기 언어학 이론을 선도한 구조주의 언어이론이 미시언어학의 범주에 속한다.

20세기후반 일반언어학에 보이는 특징을 연구대상·연구방법적 측면에서 정리하여 보면 첫째, 연구대상에서 보이는 분명한 추이는, 1) 미시적 언어연구에서 거시적 언어연구로의 전이이고; 2) 언어 내부적인 구조의 현상묘사에서 언어의 사회기능과 실용적 연구, 즉 해석적 연구로의 전이이며; 3) 단일언어의 묘사적연구에서 다언어간의 대비연구로의 전이이다. 둘째,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분명한 조류가 보이는데, 1) 연역적 연구방법론에서 귀납적 연구방법론으로의 전환이고; 2) 단층차·단각도·정태적 연구에서 다층차·다각도·동태적연구로의 전환이며; 3) 단순 수공조작의 초보적인 연구방법론의 단계에서 고도의 과학기술을 운용하는 연구방법론으로의 전환이다.

이상과 같은 20세기후반 일반언어학의 동향추이와 대비시켜, 80년대이래 중국에서 진행되었던 언어학연구를 조감하여 보면, 더욱 극명하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다원적·전방위적 연구: 80년대이래 중국언어학연구의 논저목록을 살펴보면, 우리들은 쉽게 그 연구범위의 광대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 즉 언어의 거의 모든 측면(언어이론·언어·문자·고문자·음운·훈고·사회·어법·수사·풍격·문체·방언·소수민족언어·외래어·대외중국어교육·번역 등등)과 문화의 여러 분야(문학·예술·음악·연극·민속·신화·역사·지리·종교·심리·철학·민족·考古·정치제도·경제생활·사회교제 등등)를 총괄하고 있다. 이러한 다원적·전방위적인 접근은 그 이전에는 중국언어학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다. 이같은 추세는 80년대이래 중국 전역을 강타했던 ‘문화열’의 영향으로 관측되지만, 보다 궁극적인 원인은 언어를 문화의 주요 현상으로 보려는 중국민의 분명한 인식의 변화로 여겨진다.

둘째, 자각적·주체적 연구: 문화대혁명이후 중국사회전반에 확산되었던 ‘문화열’에 동반된 또 하나의 분명한 추세는 ‘반성적 사고(反思熱)’라 할 수 있다. ‘반사열’은 중국인들이 문화대혁명의 악몽으로부터 깨어나 개방된 세계를 직시함에, 철저하게 자신들의 역사·문화전통에 기초하여, 중국인의 정신·물질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든 분야(고유한 것이든 외래의 것이든)를 막론하고 진지하게 독립적·각성적 사고를 견지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런 까닭에

모든 낡은 규범은 배척되었으며,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려는 과정속에서 일체의 것들이 의심되어 지고 새롭게 검토되는 운명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언어학계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실로 나타나게 된다. 1) 馬建忠의 《馬氏文通》(1898) 이래, 구미의 언어연구이론으로 중국어 문법을 연구하는 방식과 그것이 도출한 결론에 관한 검토이다. 2) 구조주의 언어학의 창시자인 Saussure(1857~1913) 이래 전세계적으로 풍미한 “언어학의 유일하고 진정한 연구의 대상은 오로지 언어라는, 즉 언어를 위한 언어의 연구라는 폐쇄적인 언어연구관”에 대한 회의와 부정이다. 3) 오랫동안 중국언어학계에서 비판과 냉대의 대상이었던 Humboldt(1767~1835)의 언어이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평가이다. 4) 한세기남짓 수난을 겪었던 한자의 가치와 우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더불어 당연시 되었던 한자의 표음문자로의 전이에 대한 부정 등이다.

이상과 같은 인식의 토양위에서 ‘반사열’과 ‘위기감’은 강렬한 사명감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속에서 문화대혁명 이후에 배출된 소장언어학자들의 활약 또한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데, 그들은 서구의 보편적 언어연구이론에서 탈피하여 독립적인 중국언어연구이론체계의 건립을 추구하고 있다. 그들의 이러한 노력은 21세기 중국언어연구의 새로운 좌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째, 강렬한 이론창조 의식: 주체적·자각적 연구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강렬한 이론 창조 의식일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사실상 ‘중국문화언어학’의 수립을 강력하게 제창한 申小龍(文化認同派)에게서 그 단초를 찾아볼 수 있다. 그는 기존 중국언어학 연구에 있어서의 병폐에 대하여 매우 극명하게 지적한 바 있다. 「1) 중국어에 걸맞는 주체적인 언어관을 수립하지 못했고. 2) 중국이 분명한 문화철학에 기반을 둔 언어관을 지니지 못하여, 어쩔수 없이 서구의 이론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우수운 꼴이 되고 말았다.」<sup>2)</sup> 그는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중국어에 내재된 ‘문화정신’을 중심축으로 하고, ‘중국의 문형문화’<sup>3)</sup>를 표층으로 하는 그의 중국문화언어학 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游汝杰·周振鶴(文化參照派)<sup>4)</sup>, 陳建民·劉煥輝(社會交際派)<sup>5)</sup> 등도 각각의 언어연구의 이론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자신들의 이론체계에 적합한 연구방법론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체계 구축의 시도는 중국언어학의 연구가 점진적으로 서구의 것을 검토한 기초위에서, 고유한 자신의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네째, 전통연구로의 모종의 회귀: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언어와 문화의 유기적인 연구

2) 申小龍 《中國語言學: 反思與前瞻》 p.2 참조.

3) 申小龍 《中國句型文化》(1988) 참조.

4) 游汝杰·周振鶴 《方言與中國文化》(1985) 참조.

5) 陳建民 《語言文化社會新探》(1989)·劉煥輝 《交際語言學導論》(1992) 참조.

는 부분적인 전통으로의 회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같은 전통연구로의 회귀는 단순한 과거와의 중첩이 아니라, 새로운 기점에서의 재창조를 의미한다. 즉 중국의 전통언어학(小學)이 19세기 역사비교언어학과 20세기 구조주의언어학 등의 순언어연구의 과정을 경유하면서 마치 새로운 광채를 발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점은 Chomsky(1928~)가 그의 변형생성이론이 17세기 고전적 표준이론 문법에서 영감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현재의 언어와 문화의 접목적 연구도 어쩌면 중국의 전통언어학연구, 특히 훈고학의 연구 중에서 그 자양분을 섭취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민들은 심원한 중국전통문화와 중국어의 특질에 근거하면서, 20세기 諸學의 연구성과(현대언어학 및 기타의 인문과학 등의 최근의 성과)를 흡수하여 중국언어학 발전의 풍성한 길을 열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 Ⅲ. 중국문화언어학의 유래·동향 및 전망

19세기 독일의 언어 이론가인 Humboldt(1767~1835)는 언어구조와 국민정신과의 관계를 중시하여, 언어는 「특정한 국민의 정신이 구체적으로 체현된 것(a specific emanation of the spirit of a particular nation)」<sup>6)</sup>이라 규정하였다. 미국의 언어학자, 인류학자로 사실상 미국 구조주의언어학의 개척자인 Sapir(1884~1939)는 언어형(linguistic pattern)의 개념을 제기하였는데, 즉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의 기본도식을 머릿속에 갖고 있으며, 의사 전달을 위해서 이 심리적 언어형에 따라 사람의 생각이 현실적 언어 자료로 표출된다. 따라서 이 언어형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의 문화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한다.」<sup>7)</sup>고 주장하였다. Palmer도 「언어의 역사와 문화의 역사는 相輔하면서 진행되며, 그들은 서로 협력·발전의 관계에 있다.」<sup>8)</sup>라고 지적하였다. 이상 諸家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언어와 문화 상호간의 긴밀성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다.

문화언어학은 중국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명칭이다. 그러나 歐美에서는 중국문화언어학과 그 성질면에 있어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오래전부터 “언어와 문화”, “문화 중의 언어”, “인류 언어학”, “언어인류학”, “인종 언어학” 등의 명칭이 대학의 교과과정 혹은 연구영역에 이미 존재하여 왔다. 사실상 중국문화언어학에서의 언어와 문화의 유기적이고도 긴밀한 연구는

6) 이정민·배영남 <언어학사전> (1993) p.425 참조.

7) 이정민·배영남 <언어학사전> (1993) p.786 참조.

8) Palmer <An introduction to modern linguistics> p.151 참조.

歐美 학술계의 문화연구(문화인류학·문화사회학·문화철학등)에 기초하여 이루어 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중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언어연구를 문화현상의 파악과 결집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어 왔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은 전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전통적인 훈고의 방법을 이용하여 중국사회를 연구한 것으로는 西漢의 《爾雅》와 東漢·許慎의 《說文解字》 등이 있고; 둘째, 方言의 조사를 통하여 각 지역간의 문화차이를 논의한 것으로는 西漢·揚雄의 《方言》 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저작들은 문화적인 접근이 다소 결핍되어, 그 계통성이 명확치는 않다. 그러나 구조주의언어학의 영향으로 부분적인 단절이 있었지만 사실상 이같은 언어연구의 전통은 漢代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30년대 중국소수민족 연구학자인 羅香林·張東蓀·徐松石 등이 중국내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연구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진행하였고, 특히 徐松石은 《傣族壯族粵族考》(1935)·《粵江流域人民史》(1937)등을 저술하였는데, 아쉬운 점은 이 저작들 중에는 언어학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潘懋鼎은 《中國語源及其文化》(1947)에서 어원의 고증을 통한 중화문화의 발생·중외문화의 교류를 연구하였다. 그는 어원의 연구가 문화의 성장과 변화의 전과정을 가장 빠르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용례가 너무 부족하여 전반적인 계통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羅常培의 《語言與文化》(1950)가 발표되면서 중국문화언어학은 언어학 연구의 한 주변 과학으로서 자리매김 하게 된다. 그는 어휘의 의미 분석을 통하여 언어와 문화의 유기적인 연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중국언어학계에 제시한다. 《語言與文化》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어휘의 어원과 그 변화로 본 고대문화의 흔적 2) 어휘의 구성 심리로 본 민족의 문화 정도 3) 외래어로 본 문화의 접촉 4) 지명으로 본 민족이동의 발자취 5) 성씨와 별호로 본 민족의 기원과 종교신앙 6) 친속관계의 명칭으로 본 혼인제도 등이다. 그러나 나상배의 저술 역시 내용상으로는 동서·고금의 문제를 모두 언급하고 있지만, 편폭이 너무 적어 심도있는 논의를 전개하지는 못하였다.

문화의 수난기로 평가되는 문화대혁명 이래로 중국의 학술계는 새로운 활기와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힘차게 약진하는 시기가 할 수 있다. 언어학계에서도 문화대혁명 이후 배양된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중국문화언어학이 성립되어 진다. 중국문화언어학의 출현은 결코 우연적·국부적인 현상은 아니었다. 그것은 유구한 중국의 문화·역사적인 배경에 기초하여 중국언어학 연구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려는 소장학자들의 몸부림이기도 했고, 또한 중국언어학 발전을 회구하는 세력들의 다원적인 노력의 결과이기도 했다. 80년대 본격적으로 출간된 중국문화언어학의 범주에 속하는 저작들이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예를들면, 1) 방언과 역사인문지리

2) 언어교제중의 사회·문화배경과 민족심리 3) 중국어 문법과 중국민족 문화심리 구조의 관계  
 4) 중국언어학사와 중국민족의 문화교류사 5) 古漢字와 先民의 의식특징 6) 훈고와 문화해석  
 7) 고대음악·詩律과 古聲調 8) 고대사회 연구와 인류학 9) 《說文》의미 계통과 중국고대철학  
 10) 상고중국어와 秦人의 논리 11) 의미 범주의 문화가치 12) 修辭의 문화적 의의 13) 한자개혁의  
 과학성과 민족성 ……등등 거의 중국현대언어학 연구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중국문화언어학의 수립이라는 기치 아래 풍성한 저작들이 중국전역에서 발표되고 있지만, 언어와 문화의 유기적인 연구에 종사하는 학자들의 전공영역의 다름과 저술과정에서의 이론·방법 등의 차이에 의해서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 주요 유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文化參照派: 이 유파는 游汝杰과 周振鶴으로 대표된다. 이 유파의 언어관은 다원적인 견해를 견지하고 있는데, 즉 언어는 자연현상이며 인문현상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언어학을 자연과학의 연구와 결합시키려는 기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인문과학의 연구와도 결집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문과학의 연구성과를 참조하여 언어학의 연구에 임해야 하고, 인문과학의 연구도 언어학의 연구성과를 중시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유파의 언어연구는 공시적(synchronic)·통시적(diachronic)인 연구를 겸비하고 있지만, 자주 통시적인 연구에 그 초점이 맞추어 진다. 이 유파의 언어관이 다면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일부의 학자들은 ‘雙向交叉문화언어학과’ 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유여걸은 1978년 상해 復旦대학 대학원에 입학한 이후, 줄곧 중국 각지역방언과 소수민족언어에 관심을 지녔던 소장학자이다. 그의 〈從語言地理學和歷史語言學試論亞洲栽培稻的起源和傳布〉(1980)는 방언과 소수민족언어의 연구를 문화연구와 결합시킨 처녀작인 동시에, 그의 ‘문화참조’ 적 특색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 유여걸과 주진학이 공동 출간한 〈方言與中國文化〉(1985)는 ‘중국문화언어학’ 의 명칭을 중국에서 최초로 언급한 이 방면의 대표작으로, 상술한 羅常培 《語言與文化》(1950)의 단점을 보완한 중국문화언어학의 전형적인 저작으로 꼽힌다. 뿐만 아니라 ‘문화참조’ 적 중국문화언어학 연구의 분명한 모델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方言與中國文化〉에서는 방언과 중국문화의 접목적인 연구의 타당성과 독창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중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는 일반적인 통계에 의하면 60내지 70여종이고, 각종 언어의 내부에는 방언의 차이가 현저하게 보인다. 만약 우리들이 이처럼 풍부한 언어재료와 유구하고 다양한 중국문화를 결합시켜 연구한다면 문화언어학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독일의 인종언어학·미국의 인류언어학·근래 Labov등이 주창하고 있는 사회언어학과는 다른, 중국 특유의 언어주변과학이니 마땅히 중

국언어학과 중국문화사를 결합시켜 언어와 문화의 내재적인 연관성을 연구해야만 한다.»<sup>9)</sup> 《方言與中國文化》의 본론 부분은 모두 8장으로 나누어 지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방언과 민족이동의 관계 2) 방언지리와 인문지리의 관계 3) 역사방언지리의 예측과 그 문화적 배경 4) 언어화석과 식물재배 발전사의 연관성 5) 지명으로 살핀 문화적 요소 6) 방언과 희곡 및 소설의 관계 7) 방언과 민속의 밀접성 8) 언어접촉과 문화교류 등이다. 유여걸은 《宋姜白石旁譜所見四聲調形》(1988)을 발표한 후 《方言與中國文化》가 언어학적 관점에서 문화사를 연구한 모델이라면, 《宋姜白石旁譜所見四聲調形》은 문화사적 관점에서 중국어를 연구한 모델이라고 부연한 바 있다. 또한 《方言與中國文化》의 後記에서 유여걸·주진학은 중국문화언어학의 적극적인 구축을 독려하고 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더욱 많은 학자들이 연구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하여, 즉 방언에서 표준어로에까지, 중국의 언어에서 세계의 주요 언어에 이르기까지; 지방문화사에서 중앙(중국)문화사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모든 인류문화사에까지 미치게 된다면 아마도 두 종류의 빛나는 학문: 문화언어학과 언어문화학이 이루어질 것이다.»<sup>10)</sup>

이상과 같은 기반위에서, 邢福義의 《文化語言學》(1990)이 출판되어 중국 최초 문화언어학의 교재로 쓰임과 동시에, ‘文化參照派’의 문화언어학적 관점을 계승·발전시키고 있다. 그의 《文化語言學》은 上編·下編으로 나누어 지는데 상편은 “언어로 본 문화”를 주제로, 그 주요 내용은 1) 언어로 본 문화의 구조와 순서 2) 언어로 본 문화의 발생과 발전 3) 언어로 본 문화의 전파와 교류 4) 언어의 문화에 대한 영향 등의 문제를 토론하고 있다. 하편에서는 “문화로 본 언어”를 주제로, 1) 문화의 언어계통과 언어관념에 대한 영향 2) 문화의 언어발생과 발전에 대한 영향 3) 문화의 언어접촉과 융합에 대한 영향 4) 문화의 문자와 準언어에 대한 영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

중국문화언어학의 주요 3대 유과중 현재 종사하는 연구자의 규모나 연구성과로 볼 때, 유여걸·주진학 등이 제창한 ‘文化參照派’의 연구가 斯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도 매우 긍정적이다. 또한 이같은 연구의 패러다임이 기존 언어학 연구의 폐쇄성 극복에 일조할 뿐 아니라 여타의 인문학 연구에도 새로운 활기와 동력을 제공하리라 전망된다. 이 방면의

9) 「我國境內的語言, 據一般的估計有六七十種之多, 几乎每一種語言內部都有方言的差異. 如果將如此豐富的語言材料和歷史悠久·多姿多彩的中國文化結合起來研究, 是不是可以稱之為文化語言學? 它跟德國的人種語言學·美國的人類語言學及拉派夫近年所唱導的社會語言學有所區別, 應該是具有中國特色的一個邊緣學科, 應該把中國語言學和文化史研究結合起來, 探索語言與文化史的內在聯系.」(《方言與中國文化》p.6 참조.)

10) 「我們想, 如果有更多的學者逐步把研究範圍擴大, 從方言到語言, 從中國的語言到世界上的主要語言; 從地方文化史到中國文化史, 乃至整個人類文化史, 那或許可以成就兩門燦然可觀的學問: 文化語言學和語言文化學.」(《方言與中國文化》p.262 참조.)



주요 저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河北方言詞語對民俗學社會學等學科研究的意義》(1981) 2) 李如龍·陳章太《碗窯閩南方言島二百年間的變化》(1982) 3) 伍鐵平《論語言融合和社團方言》(1983) 4) 游汝杰·周振鶴《方言與文化史研究》(1984) 5) 曲彥斌《民俗語言學新論》(1992) 6) 唐鈺明《利用佛經材料考察漢語詞彙語法史札記》(1993) 7) 李炳洋《從苗語詞彙看苗族古代文化》(1987) 8) 徐新建《語言的裂變與文化的整合—瑤族多語文現象的時代特徵》(1994) 9) 楊淑敏《語言與民俗文化例說》(1994) 10) 鄭寶倩《華夏民族的姓氏與華夏民族的歷史發展》(1987) 등이 있다.

2) 社會交際派: 이 유파는 陳建民·劉煥輝로 대표된다. 이 유파의 특징은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문화언어학을 연구한다. 즉 사회변화와 교체기능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언어의 문화적 내포를 주된 연구과제로 삼는다. 진건민은 교체 중의 언어의 차이는 자주 문화에 영향을 미치므로, 언어현상과 문화현상은 상호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문화언어학과 사회언어학의 연구를 결합시키고 있다. 진건민은 연구의 중점을 언어교체 배후에 작용하는 인문역사·민족문화·지리환경·언어감정·사회심리등의 요소에 두고 있다. 그는 문화언어학의 각도에서 언어를 연구하면 명확하게 언어교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런 그의 관점은 《受話人的語言反應》(1986)·《良好的言語交際心理》(1987) 등의 논저에 구체적으로 체현되고 있다.

진건민은 1984년에 중국사회과학원에서 중국에서는 최초로 ‘문화언어학’ 이라는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지방면의 교육에도 일익을 담당하였고, 이 강의를 기초로 《文化語言學說略》(1987)을 발표하여 ‘사회교체’ 적 문화언어관에 대한 그의 구상을 체계화 하였다. 또한 《語言文化社會新探》(1989)에서는 그의 문화언어학관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는데, 이 저서에서는 언어와 사회·언어와 심리 등이 주된 논제로 토의되고 있고, 특히 마지막 몇장의 분량을 할애하여 저자 자신의 중국어 문형과 구어교체에 대한 연구성과를 소개함으로써 그의 ‘사회교체적’ 문화언어학관의 특색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회교체’ 적 중국문화언어학에 기초하여 劉煥輝의 《言語交際學》(1986) 발표되면서 중국언어학계에 반향을 불러일으키자, 연이어 《交際語言學導論》(1991)<sup>11)</sup>을 발간하

11) 劉煥輝의 《交際語言學導論》의 본론 부분은 모두 1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 교제언어학의 잉태·맹아 및 그 과학적 배경; 2 교제언어학의 대상·경계 및 방법; 3 교제언어학의 언어사회관; 4 교제언어학의 언어동태관; 5 교제언어학의 구조와 기능의 통일관; 6 교제중국어 구조계통의 개관; 7 교제 중국어 언어행위의 구조계통(A)—언어행위 계통의 최소 구조 단위(언어행위의 기본 방식); 8 교제 중국어 언어행위의 구조계통(B)—언어행위의 복합 모델; 9 교제 중국어 언어행위의 구조 계통(C)—언어 행위의 대담 모델; 10 교제중국어 어휘의 형식 및 그 구조계통—어구의 내부구조와 외부연계; 11 교제중국어 어휘의 형식 및 그 구조 계통(B)—복합 어구의 확대; 12 교제중국어 어휘 형식 및 그 구조계통(C)—어군의 확산; 13 교제중국어 어휘의 형식 및 그 구조 계통(D)—어

여 그의 문화언어학을 분명하게 천명하였다. 그의 연구의 핵심은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여 진행하는 교제의 기본규율에 관한 것이다. 즉 언어교제는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활동이므로 이 분야의 연구에는 반드시 언어교제의 사회환경이 언급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문화역사배경, 풍속습관, 교제자의 사회심리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여긴다. 이같은 연구는 또한 사회학, 역사학, 문화학, 사회심리학 등 인접학문의 연구에도 새로운 관점과 연구 주제를 제공한다. 이로써 '사회교제과'가 중국문화언어학계에 그 견고한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 방면에서도 현재 많은 연구물이 발표되고 있는데, 특히 母語의 교제·외국어의 교육·대의 중국어 교육등의 방면에서 많은 성과물이 있으며 그 전망 또한 대단히 밝다.

주지하듯이 외국어의 학습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가능하다. 현재 중국은 정부의 주도하에 '중국어 교육의 세계화'라는 가치를 내걸고 외국인에게 적합한 중국어의 교육방법, 교재개발등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같은 그들의 노력이 '사회교제'적 관점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이 분야의 주요저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田惠剛 《對外漢語教學中的東西方文化背景》(1993) 2) 劉文茹 《跨文化交際中的非語言因素》(1993) 3) 蘇金智 《從幾組語詞看語言變異與多樣文化的關係》(1992) 4) 江莎 《論語言因素對文化模式形成的影響》(1994) 5) 陳原 《語文與社會生活》(1980) 6) 伍鐵平 《語言的社會分化》(1984) 7) 曹廣安 《詞義的社會性與時代性》(1983) 8) 王士元 《語言變化的詞彙透視》(1982) 9) 呂叔湘 《語言作為一種社會》(1980) 10) 陳建民 《地名小義》(1991) 등이 있다.

3) 文化認同派 이 유파는 申小龍으로 대표된다. 그는 중국문화언어학과 관계된 자신의 논저를 통하여 중국어에 내재된 규율은 마땅히 중국문화의 특질에 기초하여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언어는 민족문화의 가장 전형적인 표현형식이므로, 중국어와 중국철학·예술·문학·미학 등의 문화현상 사이에는 심층의 約定性을 지닌다고 강조한다. 신소룡은 특히 중국전통언어학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를 통한 계승과 창조를 지향하고, 한편으로는 서방언어학에 대한 주체적·집단적인 선택과 흡수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문화언어학의 주요 3대 유파중 비교적 뒤늦게 출발한 '문화인동'적 연구는 그 위세와 영향에 있어서 다른 유파를 훨씬 능가하고 있으며 중국학술계 전반에 미친 파급효과와 충격 또한 대단하다. 이런 까닭에 중국과 해외의 많은 사람들은 신소룡의 저작을 읽은 후에야 비로소 중국문화언어학이 실존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문화대혁명후 상해 復旦대학에 입학한 신소룡은 줄곧 중국언어학의 대가인 張世祿의 지도와

단의 확산; 14 교제 중국어 어휘의 형식 및 그 구조 계통(E)-대답 중의 어휘의 조합 모델; 15 교제 중국어 계통 중의 語鍵.

郭紹虞의 영향으로 중국언어학사를 연구하여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의 주전공은 중국언어학 중의 문법학이다. 그런 까닭에 신소룡의 중국문화언어학에 대한 연구는 초창기부터 줄곧 언어구조의 분석에 집중되어 왔다. 그의 학사논문인 《論深層構造》(1980)는 Chomsky(1928~)의 언어이론을 그 중점적인 토론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신소룡의 애초 계획은 Chomsky 변형생성문법이론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중국어 문형의 합리적인 분석을 시도하려는데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의도와는 다르게 Chomsky 언어이론의 중국어 적용은 상당한 무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중국어에 걸맞는 새로운 이론체계의 구축에 관심을 갖게 된다. 申小龍의 이처럼 독특한 중국문화언어학의 학문적 뿌리를 몇가지 구체적인 방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장세록으로 대표되는 상해학파의 《馬氏文通》(1898)이래 진행된 서구식 중국어문법 연구에 대한 냉혹한 비판에서 그 학술이론의 유래를 찾을 수 있고; 둘째, 곽소우의 修辭學에 기초한 중국어 문법 연구라는 독특한 방법인데, 특히 곽소우의 음절과 어구의 구조에 대한 심도있는 견해는 신소룡의 언어학관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세째, 독일의 인류학자인 동시에 언어학자인 Humboldt(1767~1835)가 주장한 보편적인 문법을 거부하고 문법규칙은 마땅히 각각의 언어가 지니는 특유한 사실로부터 귀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학설과, 미국의 인류학자이며 언어학자인 Sapir(1884~1939)에 의해 제기된 언어현상으로 부터 그 언어의 구조를 결정해야 한다는 학설의 영향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영향 외에도 그 집안의 내력인 중국 전통문화에 대한 돈독한 소양이 그로 하여금 독특한 '문화인동' 적 중국문화언어학을 주창케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語言研究的文化方法》(1986)을 발표하여 정식으로 학계에 중국문화언어학을 제기한 후에도 계속해서 10여권의 저작<sup>12)</sup>과 100여편의 논문을 통하여 이른바 '신소룡 신드롬' 을 국내외에 불러 일으킨다. 신소룡 이론의 핵심은 중국어에 내재된 특유의 '인문성' 과 서방언어연구의 골간인 '과학주의' 상호간의 대립을 그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 그는 이같은 '문화인동' 적

12) 신소룡의 주요 저작으로는 《中國句型文化》·《中國語言的結構與文化精神》·《人文精神, 還是科學主義?—20世紀中國語言學思辨錄》·《漢語人文精神論》·《中國文化語言學》·《社區文化與社會語言學》·《語言的文化視界》·《語文的闡釋》 등이 있다. 이들 저작중 《語文的闡釋》을 통해서 비교적 포괄적인 그의 언어관을 엿볼 수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어문 연구의 전통적 언어관; 2 경전해석: 중국어 어법 의식의 근원; 3 語氣 중심의 중국어 虛詞學 전통; 4 語義 중심의 중국어 實詞學 전통; 5 語順 중심의 중국어 句法學 전통; 6 《馬氏文通》—晚清 維新派의 어문 憲章; 7 中·西 古典修辭學 전통의 문화비교; 8 중국어의 문화적 특징과 중국어의 수사학 전통; 9 중국어 수사학 전통의 미학적 취지; 10 중국어 수사학 전통의 윤리 규범; 11 중국어 수사학 전통의 언어환경 개성; 12 중국어 전통 形觀의 단절과 반성; 13 중국어 語義 연구 전통의 현대적 轉型; 14 중국언어학사 연구의 전통 및 그 방법의 혁신; 15 중국어문전통 현대화의 풍성한 길: 문화언어학.

관점에서 20세기 중국현대언어학이 걸어왔던 맹목적인 서구의 답습을 과감히 탈피하고, 민족문화의 고유한 구조로부터 중국어에 내재된 규율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민족문화의 특질에 기초한 언어분석방법이 의심할 여지없이 여타의 언어분석이론보다 강한 해석력을 지니니, 더욱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여긴다. 신소룡은 그의 대표작 《中國句型文化》(1990)를 통하여 ‘문화인동’의 방법으로 중국어 문법을 연구한 실례를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 이 분야의 대표적인 저작을 살펴보면, 張黎《談談意合法》(1987)·徐靜茜《漢語的‘意合’特點與漢人的思維習慣》(1988)에서는 중국민족의 사유특징과 중국어 어휘의 구조적 특징을 연계 고찰하여 초보적이거나 어휘의 의미 합성 규율을 찾아내고 있다. 劉寧生은《認知·語言·文化》(1992)에서 언어 중의 문화계약과 인지중의 언어 규율의 각도에서 중국어 어휘구조를 연구하기도 하였다. 金立鑫《漢民族文化藝術特點·思維方式特點及語法結構特點散論》(1991)·沈錫倫《表現民族文化的語言形式》(1993)·陸丙甫《論漢字對漢人思維方式的影響》(1994)·趙虹《從古文字趣看我國先民的文化觀念》(1995)·余志鴻《漢語的文化歷史背景》(1993)·臧克和《說文解字的文化說解》(1993)·趙金銘《諧音與文化》(1995)등의 연구는 모두가 언어를 일종의 문화적인 틀로 간주하여 언어와 문화 상호간의 약정성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李明亞는《訓詁的價值命題》(1993)를 통하여 언어의 발전 경로와 인류의 심령본체와는 구분할 수 없는 것이라는 진일보한 견해를 학계에 제기하였다. 그는 전통적인 훈고의 방식은 경험한 사실의 진위를 가르치는 명제일 뿐만 아니라 개인 내면세계의 가치명제를 표현하기도 한다는 관점에서 훈고학의 내용·원칙·목적의 새롭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문화인동파’의 언어관을 심화시키고 있다.

‘문화인동파’의 중국문화언어학에 대한 학계의 평가는 극단을 달리고 있다. 일부의 학자들은 ‘중국언어학의 희망’ 또는 ‘21세기 중국언어학이 반드시 걸어야 할 길’ 등의 찬사를 아끼지 않는 반면, 일부의 언어학자들은 ‘문화적 국수주의’ ‘비과학적인 언어학’ 등의 맹렬한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런 와중에서도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은 이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비교적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사실상 ‘문화인동’적 중국문화언어학을 자세히 고찰하여 보면 그 이론의 배경 역시 서구의 영향임을 우리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서구의 영향을 그들의 역사·문화전통에 기초하여 중국적인 것으로 되살리려는 노력들이 또한 그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우리들은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로 전망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문화인동파’의 창조적인 노력이 우리 인문학계에 새로운 도전과 책임을 촉발할 수도 있으리라 기대한다.

#### IV. 마치는 글

5·4시기 이래 지속되어 오다가 문화대혁명 후 꽃을 피운 중국 지식인들의 고민은 중국전통문화와 서방문화를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현대화된 사회주의 중국을 세울 것인가이다. 따라서 ‘문화열’ 토론의 중심주제들은 전통, 서방을 향한 학습, 민족과 사회주의 등이며 이 주제들에 대한 관점, 방법 등의 차이에서 여러 유파<sup>13)</sup>로 갈라진다.

1990년 중국에서 발행된 《哲學年鑑》에는 ‘문화열’ 이 끝났다고 언급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까지도 더욱 심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속에는 중서·고금의 문제가 섞여 있다. 또한 우리들은 중국의 ‘문화열’ 논쟁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즉, 전통과 현대의 접목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 서구의 것을 주체적·집단적으로 수용하려는 풍부한 학계간 논의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중국적인 것으로 살려내려는 노력들이 어찌면 우리 인문학계의 논의를 더욱 풍부하고 새롭게 하는데 신선한 충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같은 다양한 논의를 통해 중국의 미래를 내다볼 수도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소련이나 동유럽처럼 쉽게 체제가 무너지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까닭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sup>14)</sup> 역시 가장 큰 기반은 문제의 초점이 되는 논의를 증폭시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현실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고, 바로 그 논의가 현재도 진행중인 ‘문화열’ 인 것이다.

‘문화열’의 여파로 발생한 문화언어학(특히 문화인동파)이라는 새로운 조류의 출현은 80년대 이래 중국언어학계 뿐만아니라 중국학술계 전반에 걸쳐서 대단한 충격과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이같은 반향의 여파로 문화언어학은 그 나름대로의 점진적인 규율화 과정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중국문화언어학은 이미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엄연한 조류로 우리앞에 다가와

13) 1 유허부흥론(근절간 중화민족의 자존심) 2 비판계승론(사회주의 신문화 건설) 3 서체중용론(전현대 사회에서 현대사회로) 4 철저제건론(황하는 죽었다)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여러 유파들의 주장을 조절·제한·강화하는 현실적 주체세력은 역시 중국공산당이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현실을 사회주의 초급단계로 보고 있으며, 사회주의와 민족을 축으로 중국적 전통과 현대화를 변증법적으로 통일시키려 한다. 이런 점에서 비판계승론과 가장 가까운 듯 보인다.(《현대중국의 모색》 PP 12~20 참조.)

14) 1 중국은 오랜 기간의 혁명전쟁을 치르면서 얻은 많은 투쟁경험이 있으며, 오늘날의 중국은 그로부터 얻어낸 소중한 성과라는 생각이 중국인들에게 지배적이다. 2 중국에는 아직도 혁명세대가 생존해 있으며, 그들이 앞으로도 한동안 집권세력의 중심이 될 것이다. 3 마르크스주의를 중국전통 및 중국현실과 결합시킨 중국적 사회주의는 전통문화의 연장선 위에 있기 때문에 단순한 옮겨심기 차원을 넘어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4 중국의 경제개방은 시험단계를 거쳐 조금씩 확대시켜감으로써 파급효과를 최소화했으며, 정치개방과는 별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현대중국의 모색》 PP 21~22 참조)

있는 것이다. 우리가 좋은 싫든 인정하든 안하든 간에, 중국 문화언어학은 존재할 것이며 또한 그 자신의 규율체계 안에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같은 중국문화언어학의 건설은 중국언어학 연구의 성질이 언어현상적 묘사에서 언어해석학 성질이 비교적 강한 인문학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중국의 유구한 문화역사배경 속에서 중국어를 연구하는 것이며, 각종 인문학을 언어학의 영역속으로, 혹은 언어학을 인문학의 범주내로 유입시켜 상호간의 교차연구를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국문화언어학이 분명한 언어과학의 이론으로서 정착되는데는 곤란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문화학이 포괄하고 있는 범위가 광범위한 반면에 언어학은 너무 전문적이어서 각 방면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언어학은 인문학의 영역 중에서도 계통성이 가장 명확하고 연구방법 또한 대단히 정밀하다. 이런 까닭에 언어학과 인문학의 접목적인 연구가 불균형을 이루게 됨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언어학 방면의 연구가 심도있게 진행되는 것이, 문화학 방면에 있어서는 그다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언어학과 문화학은 길을 달리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언어학과 문화학의 긴밀한 연구는 사실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는 사회환경과 예술, 종교 및 그밖의 사회전통을 포함한 인간의 문화형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런 까닭에 언어학자, 역사학자, 철학자, 인류학자는 문화와 언어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게 되는 것이다.

유여걸은 〈中國文化語言學趣談〉(1991)에서, 「일반언어학 발전의 역사를 통해 볼 때, 18세기가 철학의 세기였다면; 19세기는 역사비교의 세기이고; 20세기가 묘사와 변형생성의 시기라면; 21세기는 학제간의 상호 교차 연구(문화언어학)의 시기이다」 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물론 우리가 보편화된 일반언어학 이론들의 중국어에 대한 적용을 전면 부정할수도 없고 부정해서도 안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중국문화언어학'의 수립이, 어쩌면 기존 언어학 연구의 탈인문학적 성격을 다시금 인문학의 핵심적 위치로 돌리는 작업일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상아탑 안에 매몰되어진 언어학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귀한 단서를 우리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 主要參考書目

- 邵敬敏, 文化語言學中國潮, 北京:語文出版社, 1995.
- 申小龍, 中國句型文化, 長春: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91.
- 中國語言學:反思與前瞻, 鄭州:河南人民出版社, 1993.
- 語文的闡釋, 臺北:洪葉文化出版社, 1993.
- 許嘉璐의, 中國語言學現況與展望, 北京: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1997.
- 羅常培, 語言與文化, 北京:語文出版社, 1996.
- 周振鶴의, 方言與中國文化, 臺北:南天書局, 1988.
- 劉煥輝, 交際語言學導論, 南昌:江西教育出版社, 1992.
- 陳 原, 社會語言學, 香港:商務印書館, 1984.
- 陳建民, 語言文化社會新探, 上海:教育出版社, 1989.
- 邢福義, 文化語言學, 武漢:湖北教育出版社, 1990.
- 何九盈의, 中國漢字文化大觀, 北京:北京大學出版社, 1995.
- 顧嘉祖의, 語言與文化, 上海:上海外語教育出版社, 1996.
- 이정민의, 언어학사전, 서울:박영사, 1993.
- 김교빈의, 현대중국의 모색, 서울:도서출판 동녘, 1992.